

Session 9 David Overcoming Despair (1 Sam. 22; Ps. 52; Ps. 142)
제 9 장 절망을 이겨낸 다윗 (삼상 22 장, 시 52 편, 142 편)

I. INTRODUCTION

도입

- A. David experienced God’s beauty in the context of overcoming fear, shame, and depression in this season. Coming out of very negative experiences in Nob and Gath, David hit an all-time low. He entered the “Adullam years” which lasted maybe 5-7 years (from about age 23 to 30).

다윗은 이 시기에 두려움과 수치심, 우울함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놉과 가드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빠져 나온 이후, 다윗은 가장 바닥을 쳤다. 그는 5-7 년 가량 지속된 “아둘람의 시즌”으로 들어갔다(그의 나이 23 살에서 30 살 사이).

- B. In God’s plan, the season associated with the cave of Adullam was a place of training. It would have been easy for the Lord to remove Saul and give David rest from all his adversaries. His strategic delays prepared David to succeed spiritually in the future. The Lord worked something—character, faith, perseverance—in David’s life that would uphold him in time of future blessing.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둘람 굴과 연관된 시즌은 훈련의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에게는 대적으로부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분이 전략적으로 시간을 끄심으로, 다윗은 미래에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미래의 축복의 시간에 그를 붙여줄 수 있는 성품과 믿음, 인내를 다윗의 삶 가운데 빚어내고 계셨다.

- C. **Leadership lesson:** God gives us the *easiest path possible* to prepare us for our calling in the future.

리더십 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부르심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해 **가능한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 D. Escaping from Gath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David went ten miles east to take refuge in a large cave near Adullam (22:1-2). While David was in Adullam in the territory of Judah (Josh. 15:35), his relatives and some 400 distressed men joined him. David had just written Psalm 34 declaring,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as he sought to recover spiritually from his dark emotions.

블레셋의 가드로부터 빠져나온 후, 다윗은 동쪽으로 10 마일을 가서 아둘람 근처의 큰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22:1-2). 다윗이 유다 지역의 아둘람에 있을 때(수 15:35), 그에게 친척들과 400 명 가량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합류했다. 다윗은 어두운 감정으로부터의 영적인 회복을 구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라고 선포하는 시 34 편을 썼다.

¹David therefore departed from there and escaped to the cave of Adullam. So when his brothers and all his father’s house heard it, they went down there to him. ²And everyone who was in distress, everyone who was in debt, and everyone who was discontented gathered to him. So he became captain over them. And there were about four hundred men with him. (1 Sam. 22:1-2)

¹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²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삼상 22:1-2)

- E. **Cave of Adullam:** There is well-known cave outside the city of Adullam 12 miles from Bethlehem. The cave of Adullam was “David’s seminary.” In this time he wrote several psalms, in particular two related to his time “in the cave” (Ps. 57 and 142) and one related to Doeg (Ps. 52).

아들람 굴: 베들레헴으로부터 12 마일 떨어진 아들람이라는 도시 외곽에는 잘 알려진 동굴이 있었다. 아들람 굴은 “다윗 신학교”였다. 이 시기에 그는 몇 개의 시편을 썼으며, 특별히 두 편은 자신이 “굴에 있을 때” 기록했으며 (시 57 편, 142 편), 하나는 도엑과 연관된 것이었다 (시 52 편).

- F. **His father’s house:** David’s family joined him, not because of loyalty to David, but because of their fear of reprisals from Saul and a recent invasion of Bethlehem by the Philistines (2 Sam. 23:13-16).

그의 아버지의 집: 다윗의 가족도 그에게 합류했는데, 이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 사울의 보복과 최근에 블레셋이 베들레헴이 침략해온 것이 두려워서였다 (삼하 23:13-16).

- G. **400 men:** The news of David’s return was spread around the country. Some 400 men in distress, debt, and discontent gathered to David, becoming his army. This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youth groups in history. Among these were his nephews: Joab, Abishai, and Asahel. This group was transformed into the “mighty men of David” (2 Sam. 23:8-39). Where was Jonathan? He remained in Saul’s courts instead of joining David in the wilderness.

400 명: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은 나라에 퍼져나갔다. 괴롭고, 빚 지고,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서 그의 군대가 되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젊은이 그룹 중 하나였다. 이들 중에는 그의 조카인 요압, 아비새, 아사헬도 있었다. 이 그룹은 “다윗의 강력한 용사들”로 변해갔다 (삼하 23:8-39).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는 광야의 다윗에게 합류하기보다 사울에 궁정에 남아있었다.

- H. **Leadership lesson:** Some choose the honor and comfort of Saul’s court over the risks, rigors, and persecution of being with David in the wilderness years of testing outside the camp (Heb. 13:13).

리더십 강의: 어떤 이들은 영문 밖에서 다윗의 광야의 시험의 시늬에 함께 있어서 위험과 고난, 핍박을 선택하기보다 사울의 궁정에서의 명예와 편안함을 택하기도 한다 (히 13:13).

- I. **Captain over them:** David trained them in spiritual and military ways to become the nucleus of the greatest army Israelites ever had. Picture David speaking to them gathered around the campfires. “Come, you children, I will teach you the fear of the Lord” (Ps. 34:11). They stood with David in his wilderness years through persecution and later worked with him as he ruled as king of Israel.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영적, 군사적으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의 핵심 인물들이 되도록 했다. 다윗이 모닥불 주위로 모인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오라 너희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시 34:11). 그들은 다윗의 광야의 시간에 핍박을 받으며 다윗의 편에서 있었고,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와 함께 일했다.

- J. **Leadership lesson:** David “rose up” to take leadership without drawing back in fear and depression.

리더십 강의: 다윗은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물러나기보다, 리더십으로서 “일어났다.”

II. DAVID AT MIZPAH IN MOAB (1 SAM. 22:3-4)

모압 땅 미스바로 간 다윗 (삼상 22:3-4)

- A. David took his elderly parents from Adullam to Mizpah of Moab (22:3-4). There are several cities called Mizpah in Israel in addition to one in Moab somewhere east of the Dead Sea.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아둘람에서 데리고 모압의 미스바로 모시고 갔다 (22:3-4). 사해 동쪽 어딘가 모압 땅에 있는 미스바 말고도, 이스라엘에도 미스바라고 불리던 몇 개의 도시가 있었다.

³Then David went from there to Mizpah of Moab; and he said to the king of Moab, “Please let my father and mother come here with you, till I know what God will do for me.” ⁴So he brought them before the king of Moab, and they dwelt with him all the time that David was in the stronghold. (1 Sam. 22:3-4)

³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삼상 22:3-4)

- B. **My father and mother:** Saul was bitterly opposed to David and his family so there was no safety for his parents. David did not want his parents to share the hardships of his wanderings, so he sought asylum for them in Moab. Though the youngest son in the family and in his mid-twenties at this time, David took responsibility to care for his parents even while facing many difficult trials.

나의 부모가: 사울은 다윗과 그의 가족을 지극히 대적했기에, 그의 부모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사실 없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이 다윗 자신이 겪고 있는 방랑 생활을 함께 겪기를 원치 않았기에, 그는 부모님이 모압 땅에 망명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다. 다윗이 가족의 막내 아들이었고, 20대 중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을 다했다.

- C. **King of Moab:** Moab was Saul’s enemy (14:47), so the king was eager to support any rival of Saul. David’s father was Jesse, and his great-grandfather Boaz had married Ruth of Moab (Ruth 4:13-22). In marrying Boaz, Ruth became a rich and influential woman in Israel. Thus the king of Moab is doing a favor in memory of this famous Moabite woman who had moved to Israel.

모압 왕: 모압은 사울의 적이었고 (14:47), 따라서 모압 왕은 사울의 적이라면 도와주기를 원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그의 증조부 보아스는 모압의 룯과 결혼을 했다 (룯 4:13-22). 룯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다. 따라서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로 옮겨간 유명한 모압 여인을 기억하며 호의를 베풀고 있다.

III. DAVID IN THE FOREST OF HERETH (1 SAM. 22:5)

헤렛 수풀 의 다윗 (삼상 22:5)

- A. The prophet Gad exhorted David to leave Moab and return to Judah (22:5). David was quick to respond to this prophetic word and return to Judah which was far more dangerous than Moab.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 유다로 돌아갈 것을 말했다 (22:5). 다윗은 이 예언적인 말에 즉시 응답했으며, 모압보다 훨씬 위험한 곳인 유다로 돌아갔다.

⁵Now the prophet Gad said to David, “Do not stay in the stronghold; depart, and go to the land of Judah.” So David departed and went into the forest of Hereth. (1 Sam. 22:5)

⁵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삼상 22:5)

- B. **Hereth:** David went to the forest of Hereth which was probably on the edge of a mountain chain surrounded by thickets; it was in the territory of Judah probably about three miles from Adullam. The forest provided some protection against Saul's large military force of 3,000 men.

헤렛: 다윗은 헤렛 수풀로 갔으며, 이곳은 덤불로 둘러싸인 산맥 끝자락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아둘람으로부터 약 3 마일 정도 떨어진 유다 영토 안에 있는 곳이었다. 다윗은 사울의 3,000 명 병사들로부터 이 수풀에 숨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 C. **Go to Judah:** Gad instructed David to go to Judah where Saul was seeking to kill him. This was an important prophecy. David had to trust God every day in Judah as 3,000 of Saul's men sought him.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갓은 다윗에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는 중요한 예언이었다. 다윗은 3,000 명의 사울의 병사들이 그를 찾고 있었기에, 유다에 있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야만 했다.

1. The Lord wanted to give David a greater testimony of His intervention and deliverance so that David would have a greater spiritual depth when he became king of Israel.

주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더 큰 영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더 큰 증거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2. By being in Judah and protecting the people from the Philistine invasions, David gained credibility throughout Judah and all Israel as more and more men joined him (1 Chr. 12:1-22).

다윗은 유다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로부터 더 큰 신망을 얻었으며, 더 많은 이들이 그에게 합류하게 되었다 (대상 12:1-22).

- D. **Gad:** He was faithful in the wilderness years and later served as a court prophet after David became king (2 Sam. 24:11-19; 1 Chr. 21:9-19; 2 Chr. 29:25). Gad was a young man when he joined David and may have been sent by Samuel from the prophetic school at Naiioth in Ramah to help David.

갓: 그는 다윗의 광야의 시간에도 충성되게 섬겼으며,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궁정의 선지자로 섬겼다 (삼하 24:11-19; 대상 21:9-19; 대하 29:25). 갓은 다윗에게 합류했을 때 젊은 나이였으며, 아마도 사무엘이 라마의 나오티에서 운영하던 선지자 학교로부터 다윗을 돕기 위해 보냈을 것이다.

IV. THE MASSACRE OF THE PRIESTS AT NOB (1 SAM. 22:6-23) 눅 땅에서의 제사장들 집단 학살 (삼상 22:6-23)

- A. In Gibeah, having previously given orders to kill David (19:1), Saul heard about David's actions in Nob (22:6-8) when his top government officials were "standing" before him in an official meeting.

이전에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19:1) 사울은 기브아에서 그의 신하들이 공식 미팅에서 그 앞에 "서" 있는 가운데 다윗이 눅에 있었던 일들을 듣는다 (22:6-8).

“When Saul heard that David and the men who were with him had been discovered—now Saul was staying in Gibeah...and all his servants standing about him—⁷then Saul said to his servants who stood about him, “Hear now, you Benjamites! Will the son of Jesse give every one of you fields and vineyards, and make you all captains of thousands and captains of hundreds? ⁸All of you have conspired against me, and there is no one who reveals to me that my son has made a covenant with the son of Jesse; and there is not one of you who is sorry for me or reveals to me that my son has stirred up my servant against me, to lie in wait, as it is this day.” (1 Sam. 22:6-8)

⁶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⁷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⁸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삼상 22:6-8)

- B. **Benjaminites:** Saul was from the tribe of Benjamin. He appealed to tribal loyalty by addressing his officials as “Benjaminites” (22:7), also indicating his favoritism in giving the best positions in his government and military, plus farm properties, to his kinsmen from the tribe of Benjamin. This redistribution of fields and vineyards by the king was an abuse of which Samuel had warned (8:14). Saul assured them that David, from the tribe of Judah, would not make them powerful and rich.

베냐민 사람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말하며 지파로서의 충성을 요구했다 (22:7). 그는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자신의 친척 일가들에게 정부와 군의 요직을 주고, 밭과 포도원을 주며 편애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밭과 포도원을 재분배한 것은 사무엘이 경고한 내용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했다 (8:14). 사울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권세와 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 C. **Leadership lesson:** Insecure leaders only put “their own people” in positions of leadership without regard to qualifications. David put people from different tribes, even some with past hostility against him (e.g. Abner), into leadership positions.

리더십 강의: 불안정한 리더들은 자신의 아래 리더십 자리에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람들”만 세워놓는다. 다윗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과거에 자신을 대적한 사람까지도 (아브넬) 리더십 자리에 세웠다.

- D. **Conspired:** Saul accused the priests of knowing about David’s flight and not informing him, which was the same charge he had brought against his own officials (22:8). Saul accused them of giving David food and a sword and of inquiring of God for him.

너희가 다 공모하여: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비난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했던 비난과 동일한 것이었다 (22:8). 사울은 그들이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비난했다.

- E. **Lie in wait:** Saul thought his son Jonathan stirred up David to ambush and assassinate him (22:8). Saul was paranoid, thinking David was secretly plotting his downfall and that his loyal son was the ringleader of a new anti-Saul conspiracy. With a negative mindset, he saw conspiracy everywhere.

매복하였다가: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극해서 매복해서 사울을 암살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2:8). 사울은 피해망상증이었으며, 다윗이 비밀스럽게 자신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이 사울을 대적하는 새로운 음모의 배후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그에게는 어디에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F. **Son of Jesse:** Saul did not usually refer to him as “David,” which means *beloved of the Lord* but as “the son of Jesse.” This term for David expressed Saul’s contempt for him (22:7, 8, 9, 13, 17).

이새의 아들: 사울은 다윗을 보통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다윗”이라 부르기 보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다윗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울이 그를 경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7, 8, 9, 13, 17).

- G. **Sorry for me:** Saul, filled with self-pity, complained that no one would help him.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사울은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 H. **Leadership lesson:** Saul wanted people to feel sorry for him. This is bad leadership because people are much more in touch with their own pressures rather than the pressures of their leaders. People want to follow leaders who are focused on helping others, not on securing their own positions.

리더십 강의: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랬다. 이는 좋지 않은 리더십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리더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들 자신들의 어려움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리더십보다, 그들에게 집중해주는 리더를 더 따르기를 원한다.

- I. Doeg suggested that the priests were assisting David in a conspiracy (22:9-10). He misrepresented Ahimelech as using the unique powers of his office as high priest to give aid to an enemy of the king by supplying David with food, weapons, and prophetic ministry (inquiring of the Lord).

도엑은 이 제사장들이 다윗의 음모를 도왔다는 의견을 냈다 (22:9-10). 그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인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왕의 적인 다윗에게 음식, 무기, 예언 사역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제공했다는 잘못된 의견을 제시했다.

⁹Then answered Doeg the Edomite, who was set over the servants of Saul, and said, “I saw the son of Jesse going to Nob, to Ahimelech...¹⁰And he inquired of the LORD [prophetic ministry] for him, gave him provisions, and gave him the sword of Goliath the Philistine.” (1 Sam. 22:9-10)

⁹ 그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놈에 와서 아히둑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¹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예언 사역]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삼상 22:9-10)

- J. Saul sent for Ahimelech and the whole priestly family at Nob to stand before him (22:11). Before his court he charged them all with treason in participating in a conspiracy against him (22:13).

사울은 놈의 아미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의 앞에 설 것을 요구했다 (22:11). 그는 자신의 궁정에서 이들 모두를 그를 대적하는 음모에 참여했다고 반역죄로 고발했다 (22:13).

¹¹The king sent to call Ahimelech...and all his father’s house, the priests who were in Nob...¹³Saul said to him, “Why have you [Ahimelech] conspired against me, you and the son of Jesse, in that you have given him bread and a sword, and have inquired of God for him, that he should rise against me, to lie in wait, as

it is this day?”¹⁴ So Ahimelech answered the king and said, “And who among all your servants is as faithful as David, who is the king’s son-in-law, who goes at your bidding, and is honorable in your house? ¹⁵Did I then begin to inquire of God for him? Far be it from me!...For your servant knew nothing of all this, little or much.”(1 Sam. 22:11-15)

¹¹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 ¹³ 사울이 그[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¹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¹⁵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삼상 22:11-15)

- K. Saul ordered the execution of all the priests in Nob—85 priests and their families (22:16-19). This was the worse massacre of the priesthood at the hands of a Jewish king.

사울은 놉의 모든 제사장들을 처형할 것을 명했다. 이는 85 명의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22:16-19). 이는 유대인 왕이 직접 제사장들을 학살한 아주 좋지 않은 사건이었다.

¹⁶And the king said, “You shall surely die, Ahimelech, you and all your father’s house!”¹⁷ Then the king said to the guards who stood about him, “Turn and kill the priests of the LORD, because their hand also is with David, and because they knew when he fled and did not tell it to me.” But the servants of the king would not lift their hands to strike the priests of the LORD. ¹⁸And the king said to Doeg, “You turn and kill the priests!” So Doeg the Edomite turned and struck the priests, and killed on that day eighty-five men who wore a linen ephod. ¹⁹Also Nob, the city of the priests, he struck with the edge of the sword, both men and women, children and nursing infants, oxen and donkeys and sheep—with the edge of the sword. (1 Sam. 22:16-19)

¹⁶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¹⁷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¹⁸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을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 ¹⁹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삼상 22:16-19)

- L. No Israelite would follow Saul’s orders, but Doeg did. What Doeg the Edomite does to them is what Saul was supposed to have done to the Edomites (1 Sam. 15).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도엑은 이를 따랐다. 에돔인이었던 도엑이 그들에게 행한 일은 사울이 에돔인들에게 했어야 한 일이었다 (삼상 15 장).

- M. This massacre fulfilled the judgment spoken against the house of Eli (2:29-36). A generation earlier, Eli the high priest and his sons sinned grievously against the Lord (3:12-14). An unnamed prophet had said, “In the future all the priests in your family line will be cut off in the flower of their life. When Israel hears it, their ears will tingle” (3:11). There are at least four contributions—the sin of Eli and his sons, Saul’s decree, David’s lie, Doeg seeking a reward from Saul—cooperating with this satanically-inspired national tragedy. God used the evil actions of sinful men to fulfill His larger purpose as prophesied over the house of Eli (2:29-36, 3:11-14).

이 학살은 엘리의 집에 대해 예언된 심판을 성취한 것이 되었다 (2:29-36). 한 세대 이전에, 대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해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 (3:12-14).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가 말했다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2:33; 3:11). 이러한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국가적인 비극에는 최소한 4 가지 원인이 있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 사울의 명령, 다윗의 거짓말, 도엑이 사울로부터 상급을 바라고 있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의 악한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엘리 집을 향해 예언적인 그분의 더 큰 목적으로 성취하는 것에 사용하셨다 (2:29-36, 3:11-14).

N. Abiathar was the only priest who escaped the purge; he joined David (22:20-23). He brought the ephod that provided divine direction, now for David instead of Saul.

아비아달은 이 숙청을 피한 유일한 제사장이었으며, 그는 다윗에게 합류했다 (22:20-23). 그는 하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으며, 이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위해 가지고 왔다.

²⁰Now one of the sons of Ahimelech...named Abiathar, escaped and fled after David. ²¹Abiathar told David that Saul had killed the LORD's priests. ²²David said to Abiathar, "I knew that day, when Doeg the Edomite was there, that he would surely tell Saul. I have caused the death of all the persons of your father's house. ²³Stay with me; do not fear. For he who seeks my life seeks your life, but with me you shall be safe." (1 Sam. 22:20-23)

²⁰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²¹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²²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²³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삼상 22:20-23)

1. Without mentioning Saul's role, David acknowledged his responsibility (22:22).

다윗은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만을 언급했다 (22:22).

2. David promised Abiathar protection and friendship (22:23). Abiathar stayed with David throughout the wilderness years and for the rest of his life. He eventually shared the position of the high priest with Zadok during David's reign (2 Sam. 20:25; 15:24-36).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호해줄 것과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22:23). 아비아달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머지 생애 내내 그와 함께 했다. 그는 결국 다윗의 통치 때에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 자리를 섬겼다 (삼하 20:25; 15:24-36).

V. PSALM 52: EXPERIENCING GOD'S GOODNESS AND MERCY IN FAILURE

시 52 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봄

A. *The superscription for Psalm 52: "A contemplation of David when Doeg the Edomite went and told Saul, and said to him, David has gone to the house of Ahimelech."*

시 52 편의 표제: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 B. David wrote this Psalm related to a great tragedy in his life and the nation, the background being in 1 Samuel 21-22. He was filled with shame and guilt for causing the death of 85 priests and their families (1 Sam. 22:22). Here he contrasted his trust in God with Doeg's disregard for Him.

다윗은 자신의 삶과 국가에 있었던 큰 재난과 관련해서 이 시편을 썼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삼상 21-22 장이다. 그는 85 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가득 차 있었다 (삼상 22:22). 여기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 도엑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대조시켰다.

- C. Both David and Doeg lied, leading to the massacre of the priests of Nob. David lied to the high priest Ahimelech saying that he was on a secret mission for Saul, while Doeg lied to Saul by coloring the story to get a reward and making it appear as if Ahimelech were involved in a conspiracy against the king. Doeg executed the priests at the command of Saul.

다윗과 도엑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놉의 제사장들은 학살을 당했다. 다윗은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사울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도엑은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왕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야기를 꾸며대서 상을 받고자 했다. 도엑은 사울의 명령에 제사장들을 처형해버렸다.

- D. David described Doeg as boasting in his sin instead of repenting of it (52:1-4). Doeg bragged about what he did, thus spurning God's goodness (52:2).

다윗은 도엑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2:1-4). 도엑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했으며,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해버렸다 (52:2).

¹Why do you boast in evil, O mighty man? The goodness of God endures continually. ²Your tongue devises destruction...working deceitfully. ³You love evil more than good, lying rather than speaking righteousness. Selah ⁴You love all devouring words, you deceitful tongue. (Ps. 52:1-4)

¹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²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³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 52:1-4)

1. David's point was, how could Doeg stand with such a callused heart before a God who offers such goodness to any who will repent and humble themselves before Him?

여기서 다윗의 초점은,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면 누구에게라도 선하심을 보이실 하나님 앞에 도엑이 어찌하여 이렇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다.

2. Doeg was a *mighty man* because his high position over Saul's herdsmen and servants (21:7; 22:9). It was a position which brought Doeg great wealth (52:7)

도엑은 사울의 목동과 종들의 대장의 지위를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21:7; 22:9). 도엑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준 것은 그의 지위였다 (52:7).

- E. God's judgment on Doeg described (52:5-7)

도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52:5-7)

⁵God shall destroy you forever; He shall take you away, and pluck you out of your dwelling place, and uproot you from the land of the living...⁷“Here is the man who did not make God his strength, but trusted in the abundance of his riches, and strengthened himself in his wickedness.” (Ps. 52:5-7)

⁵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⁶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⁷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 52:5-7)

- F. David’s experience of salvation (52:8-9): One defining feature of David’s life was his ability to receive God’s mercy, repent in a deep way, and stand with confidence in the love of God.

다윗이 경험한 구원 (52:8-9): 다윗의 삶을 이루는 부분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며,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었던 능력이라는 부분이다.

⁸But I am like a green olive tree in the house of God; I trust in the mercy of God forever and ever. ⁹I will praise You forever, because You have done it... (Ps. 52:8-9)

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⁹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 52:8-9)

1. The olive tree was the most important tree in ancient Israel because it was a source of food, light, hygiene, and healing. Olive trees develop very slowly, but live for hundreds of years. They grow in almost any condition—very hot, dry, cold, wet, rocky, or sandy—and are virtually indestructible. It is said that you can never kill an olive tree. Even when cut down or burned, new shoots will emerge from its roots. They are known for their tenacity. Olive trees and the olive were regarded as a symbol of beauty, strength, divine blessing and prosperity.

감람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 음식과 빛, 위생, 치유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나무였다. 감람 나무는 매우 천천히 자라지만 수명이 수백 년이나 된다. 이 나무는 거의 어떤 상황 하에서도 자란다. 매우 덥거나 건조한, 또는 춥거나 습하거나 바위가 많거나 모래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자라며, 실제로 거의 안 죽는다. 당신은 감람 나무를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나무를 잘라내거나 불에 태워도,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다시 솟아난다. 감람 나무는 그 끈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와 올리브는 아름다움, 힘, 하늘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2. David praised God because *He has done it*—“He redeemed, forgave and saved him” (52:9)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 그분을 찬양했다 “그분이 구해내셨고, 용서하셨으며, 구원하셨다” (52:9)

VI. PSALM 142: OVERCOMING DESPAIR

시 142 편: 절망의 극복

- A. *The superscription for Psalm 142: “A prayer when he was in the cave.”*

시 142 편 의 표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 B. David expressed his complaint to God (142:1), overwhelmed by all the negative issues mounting up in his life (142:2). It is better to express it to Him and not to others.

다윗은 자신의 삶에 증가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142:2)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했다 (142:1).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다.

¹I cry out to the LORD with my voice...²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I declare before Him my trouble. ³When my spirit was overwhelmed within me... (Ps. 142:1-3)

¹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 ²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³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 (시 142:1-3)

- C. David had so many great promises, but they continued to be delayed. We see the end of David's story, but not our own. When we see the whole story, it makes sense. But when we are only halfway through our own story, it may seem like all is lost.

다윗에게는 너무도 많은 위대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이 약속들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의 스토리의 끝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의 스토리의 끝을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스토리 전체를 보게 되면, 그제서야 수궁이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중간 정도 밖에 오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D. David felt lonely and cried out that no one acknowledged or understood him (142:4). Even with 400 men at his side, he knew that they did not really understand or care for him. David felt that his refuge failed (142:5), that his plans to get free from his enemies were not working.

다윗은 외로움을 느꼈고, 아무도 그를 아는 이가 없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부르짖었다 (142:4). 그의 옆에 400 명이 있었음에도, 그는 그들이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거나 돌아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그가 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피난처가 없다고 느꼈다 (142:5).

⁴...for there is no one who acknowledges me; refuge has failed me; no one cares for my soul. ⁵I cried out to You, O LORD: I said, "You are my refuge, my portion in the land of the living. ⁶Attend to my cry, for I am brought very low; deliver me from my persecutors, for they are stronger than I. ⁷Bring my soul out of prison, that I may praise Your name; the righteous shall surround me, for You shall deal bountifully with me." (Ps. 142:4-7)

⁴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⁵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⁶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⁷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 142:4-7)

- E. David felt abandoned. The Lord was his only way out of his troubles. We say, "O Lord, You are my portion. You are all I want." David realigned his heart so that the Lord was the goal of his life. What did David do? He had only one option, v. 5: to cry out to God.

다윗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다. 하나님은 그의 어려움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였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분깃이시며, 내 전부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다윗이 여기서 한 일은 무엇인가? 5 절에서 그에게는 단 한가지 방법 외에는 없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 F. Summary: “my spirit is overwhelmed (v. 3),” nobody understands or cares (v. 4), he was very low (v. 6), his enemies were stronger (v. 7), and his soul was in prison (v. 7).

요약: “그의 영이 그 속에서 상했으며 (3 절),” 아무도 이해해주거나 돌아보지 않으며 (4 절), 그는 매우 낮은 데에 처했으며 (6 절), 그의 대적은 더 강했으며 (7 절), 그의 영혼은 옥이 갇혀 있었다 (7 절).

VII. PSALM 57: A STEADFAST HEART

시 57 편: 마음을 확정함

- A. *The superscription for Psalm 57: “A michtam of David when he fled from Saul into the cave.”*

In Psalm 57, David broke through the despair, seen in Ps. 142:3, to walk in the beauty of the Lord. Walking in power in his heart, he found his way through depression in difficult circumstances.

시 52 편의 표제: “다윗의 믹담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 57 편에서, 다윗은 시 142:3 절에서 보이는 절망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걸어들었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어려운 환경 안에서의 절망을 뚫고 길을 찾아나갔다.

¹ ... O God, be merciful to me! For my soul trusts in You... ² I will cry out to God Most High, to God who performs all things for me... ⁷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give praise. ⁸ Awake, my glory! Awake, lute and harp! I will awaken the dawn. ⁹ I will praise You, O Lord, among the peoples; I will sing to You among the nations. ¹⁰ For Your mercy reaches unto the heavens, And Your truth unto the clouds. ¹¹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Your glory be above all the earth. (Ps. 57:1-11)

¹ ...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 ²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 ⁷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⁸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⁹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¹⁰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¹¹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 57:1-11)

- B. *Steadfast:* David set his heart to be steadfast in wholehearted love and commitment to the Lord.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

- C. *Praise:* David gave praise instead of yielding to condemnation, complaint, and fear (57:9).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정죄감에 사로잡히거나 불평과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57:9).

- D. *Awake my glory:* This refers to the deepest parts of his heart, the deepest recesses of affections.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는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말한다.